



민意的 殿堂... 歷史的 竣工

—— 單一建築物로서는 國內最大 ——

制憲國會開院以來 宿願이었던 國會議事堂이 드디어 歷史的인 竣工을 보았다.

1966年 朴大統領閣下께서 「앞으로 세워질 國會議事堂은 統一韓國을 내다 보며 兩院制를 쓸 수 있도록 規模를 다지라」는 비존的 諭示에 따라 새 國會議事堂 建立計劃이 本格化되었다. 따라서 國內 有數한 建築大家들이 參與하게 되었는데 議事堂 建設 諮問委員에는 金允基 (科技總會長) 前 建設部長官을 비롯, 設計分野에는 金正秀 (延世 大教授) 博士, 構造分野에는 金亨杰 博士, 照明電氣에 池哲根 博士, 機械에 金孝經 博士가 擔當 專心全力해 왔다.

建築樣式은 로마式, 도리아式 르네상스式을 비롯, 現代式을 加味하였고 石窟庵, 慶會樓, 景福宮의 韓國建築美를 반영 石造中心으로 하였다

이 建築物를 짓기 爲해 石材와 大理石 採石場을 찾아 36種을 點檢했으며 小靑島 (休戰線 近方)에서 大理石鑛을 發見해 가면서 國產化에 힘쓴바 있다.

다만 돔 直下의 中央 로턴더·홀을 中心으로

한 一部分이 이탈리아產石材를 썼을 뿐 大部分을 國產花崗石과 大理石으로 築造했다.

여기에 使用된 大理石이 27,000 立方m 花崗石이 43,200 立方m에 達했다.

몇가지 特記 할것은 300名을 수용할 수 있는 本會議場을 輝煌 찬란하게 비춰주는 最新式 電子샹들리에아는 우아하고 웅장하다.

또한 半圓形 階段式 300議席과 100席의 移動式 座席을 갖추게 設計되어 있다.

巨대한 24個의 列柱가 힘차게 솟아 柱廊을 形成하고 있으며 높이 32.5m의 列柱는 경회루의 石柱를 본딴 것이다.

柱廊위에는 直徑 63.4m의 巨대한 圓形 돔이 씌어져 있는데 列柱는 意見提示를 상징했으며 意見의 統一을 돔으로 表顯했다.

總 135億원의 工事費와 6年 1個月間의 工事期間에 無事故로 세워진 이 建築物은 國內 最初의 單一建物 (規模)로써 가장 큰 純 우리技術의 所產物이라는 點에서도 큰 뜻을 지니고 있다.